

결과를 나타낸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 나머지’의 문법화 정도와 통사·화용적 의미

곽일성(郭一誠) 중국 복단대학교(復旦大學校)

- I. 들어가기
- II. 문법화의 개념 및 범위
- III.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문법화 정도
- IV.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통사·화용적 의미
- V. 나오기

I. 들어가기

명사 ‘결과’, ‘끝’, ‘나머지’는 아래 (1ㄱ.ㄴ.ㄷ)처럼 자립명사로서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등 문장 성분으로 쓰이기도 하고 (1ㄱ’.ㄴ’.ㄷ’)과 같이 ‘-(으)ㄴ 결과’, ‘-(으)ㄴ 끝에’와 ‘-(으)ㄴ 나머지’의 관용형태(慣用形態)¹⁾로 용언 어간 뒤에 쓰여 선후행절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와 비슷한 문법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1) ㄱ. 결과를 발표했다.

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점심식사 후 매일 양치질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여성의 68%, 남성의 4%였다.

-
- 1) ‘-는 법이다’, ‘-기 마련이다’, ‘-(으)ㄴ 것 같다’와 같이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문법 단위에 대해 통일된 용어가 없어 ‘구문’, ‘구성’, ‘통합형태’ ‘통사적 구성’ 등 여러 이름으로 지칭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단순하지 않은 구성이 이미 상당히 고정되고 관습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관용형태’라고 부른다.

ㄴ. 끝이 났다.

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ㄷ. 나머지를 다 버려라.

ㄷ'. 분개한 나머지 한참 동안 말을 잊은 것 같았다.

아래 (2)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를 보면 명사 ‘결과’, ‘끝’, ‘나머지’의 기본의미는 각각 ‘열매를 맺음’, ‘마지막 부분’, ‘차고 남은 부분’으로 풀이되어 의미적인 관련성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으)ㄴ 결과’, ‘-(으)ㄴ 끝에’와 ‘-(으)ㄴ 나머지’의 관용형태로 쓰일 때는 마지막 의미항인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행동이나 일이 있는 다음의 결과’와 ‘어떤 일의 결과’를 나타내며, 비슷한 통사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선행절의 어떤 동작에 의해 후행절의 어떤 ‘결말’이나 ‘결과’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세 관용형태가 의미상의 유사성을 보인다.

(2) **결과**: ① 열매를 맺음. 또는 그 열매; ②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끝: ① 긴 물건에서 가느다란 쪽의 맨 마지막 부분; ② 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 ③ 순서의 마지막; ④ 행동이나 일이 있는 다음의 결과.

나머지: ①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 ② 어떤 일을 하다가 마치지 못한 부분; ③ (흔히 ‘-(더)ㄴ 나머지’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의 결과.

그러나 의미상의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이 세 관용형태가 완전히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ㄱ. 제보된 사례 19건 중 16건을 조사한 결과/끝에/*나머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ㄱ. 제보된 사례 19건 중 16건을 조사하니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ㄴ. 3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결과/*나머지 광주로 출발했다.

ㄴ'. 3시간 동안 기다리고 광주로 출발했다.

ㄷ.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결과/*끝에 눈물까지 보였다.

ㄷ'.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눈물까지 보였다.

위 예(3)처럼 ‘결말’, ‘결과’를 나타낸 세 관용형태는 선후행절을 연결해주는 데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며, 서로 교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비록 (3ㄱ)의 ‘조사한 결과/끝에’처럼 서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도 미세한 의미 차이로 서로 구별된다. 그리하여 ‘결과’라는 개념에 대해서 ‘인과관계’로 인한 것과 ‘시간상의 선후 관계’로 인한 것으로 나누어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3ㄱ)의 ‘조사한 결과’와 (3ㄱ')의 ‘조사하니’, (3ㄴ)의 ‘기다린 끝에’와 (3ㄴ')의 ‘기다리고’, (3ㄷ)의 ‘기쁜 나머지’와 (3ㄷ')의 ‘기뻐서’가 대체로 서로 교체할 수 있지만 이 세 관용형태가 원인이나 시간상의 선후를 나타낸 연결어미 ‘-니’, ‘-어서’, ‘-고’와 완전히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이 세 관용형태가 화자의 어떤 주관적 판단, 즉 어떤 화용적 의미를 더 나타내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법화(文法化: Grammaticalization)’²⁾ 이론의 틀 안에서 자립명사 ‘결과’, ‘끝’, ‘나머지’가 관용형태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의미의 변화, 재구조화, 기능·범주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 세 관용형태의 문법화 정도를 비교하고, 그

2) Hopper & Traugott(1993: 18-31)에 의하면 ‘Grammaticalization’이라는 용어를 문헌에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Meillet(1912=1958)이다. 백낙천(2009: 244) 재인용.

리고 이 세 관용형태가 지니고 있는 통사·화용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 어미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고찰하는 종전의 허사화(虛辭化)³⁾ 연구에 비해 ‘의미의 약화(semantic weakening), 재분석(reanalysis), 기능·범주의 변화(decategorialization), 전문화(specialization), 의미지속성(persistence)’ 등 원리와 가설로 구성된 문법화 이론은 언어의 점진적 변화를 통시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 설명하는 범언어적, 범시적 언어학 이론으로서 높은 해석력을 가지고 있다.⁴⁾ 다시 말하면 문법화 연구는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화용론, 인지언어학 등 다른 언어학 분야와의 결합⁵⁾ 등 여러 면에서 거시적 언어학 이론으로서의 가치를 보이고 있다.

Bybee(1985, 1994), Hopper & Traugott(1993) 등 서양의 문법화 연구와 함께 한국어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진행된 문법화 연구는 크게 이론적 접근과 실천적 접근 두 가지 연구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형용(1998), 이성하(1999), 이지양(2003), 백낙천(2009), 남미정(2010) 등 연구는 이론적 접근으로서 문법화의 개념과 범위, 문법화의 원리와 기제, 그리고 문법화가 언어학 이론으로서의 존립 여부와 학문적 가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형용(1998), 이지양(2003)과 남미정(2010)은 문법화의 여러 개념과 원리를 검토하면서 ‘파생접사화’, ‘어휘형태소>어휘형태소’, ‘문법형태소>문법형태소’, ‘보조동사화’ 그리고 ‘어

3) 이승녕(1961), 이기문(1961), 유창돈(1962), 안병희(1967) 등에서 한국어 문법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들 논의에서는 문법화라는 용어 대신에 ‘조사화, 허사화, 접사화, 어미화(선어말어미화, 어말어미화)’ 등의 용어가 문법화의 이칭(異稱)으로 통용되어 왔다. 백낙천(2009: 247) 재인용.

4) 이성하(1999: 430)에서 문법화 이론의 장점에 대해 “1)거시적 언어현상의 총체적 분석; 2)독립적 증거에 의한 높은 설명력; 3)언어변화의 동기 설명; 4)하위분야 설정의 경직성 탈피; 5)범언어적 타당성 추구; 6)범시적 시각”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5) 어휘형태소에서 문법형태소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와 장치로서 ‘은유(metaphor)’와 ‘화용화(pragmaticalization)’가 많이 거론됐다.

회화' 등 언어 변화를 문법화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성하(1999)는 문법화의 원리로서는 '층위화(layering), 분화(divergence), 전문화, 의미지속성', 그리고 문법화를 일으킨 기제로서는 '은유, 유추, 환유, 재분석, 화용적 추론, 조화, 일반화, 흡수' 등 개념을 제시하고 분석했다. 백낙천(2009)은 이성하(1999), 이지양(2003)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융합(fusion)과 역문법화(degrammaticalization) 등 원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했다.

한편, 안주호(1999, 2004, 2006 ㄱ, 2006 ㄴ, 2010, 2011), 이수련(2003), 박승윤(2003), 김민국(2011), 이금희(2012) 등 많은 연구는 한국어의 구체적 문법화 현상을 고찰하면서 문법화의 여러 원리를 검증했다. 안주호(1999)는 연결어미 '-길래'와 '-기에'의 통사적·의미적 차이를 밝히고 '-길래'의 형성과정을 '공존의 준칙, 분화의 준칙, 특정화의 준칙, 유지의 준칙, 탈범주화의 준칙'에 따라서 설명했다. 안주호(2004)는 자립명사 '법'이 '-는 법이다[법1], -는 법이다[법2], -는 법이 있다/없다[법3], -ㄴ 법하다[법4]'의 구성이 되면서 어떤 양태의미를 표현하는가를 밝히고 이런 양태용언으로의 발달은 은유적 확장에 의한 의미의 주관화의 경향 때문이라고 했다. 안주호(2006 ㄱ)는 현대국어에서 희망의 '싶다' 구문인 '-고 싶다'와 '추측'의 표현인 '-ㄴ/ㄹ가 싶다'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희망', '추측'의 의미는 '싶다'의 원형 의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행하는 어미 '-고저', '-ㄴ/ㄹ가'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판단한다. 안주호(2006 ㄴ)는 연결어미 '-니까', 안주호(2010)는 특수조사 '-치고', '-보고', '-가지고', '-말고'의 형성 과정과 양태의미를 고찰했다. 이수련(2003)은 '있다'가 원형인 존재 표현에서 장소, 소유, 시간 표현으로 확장되어 쓰이다가 결국에는 그 시간개념마저 없어진 현상을 분석하여 은유는 문법화의 거시구조에, 환유는 미시구조에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윤(2003)은 '주다'가 본동사로부터 보조동사 '-어 주다'로 문법화하는 것과 그 양태적 의미를 고찰했다. 김민국(2011)은 공식적으로 다양한 성

격을 지니는 ‘말이다’ 구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이들의 통사, 의미 특징 그리고 변화의 원리와 과정을 고찰한 뒤 문법화와 화용화의 관계를 논의했다. 이금희(2012)는 명사나 의존명사가 들어있는 ‘-는 법이다, -기 마련이다, -기 십상이다, -기 일쑤이다’ 구성의 문법화 정도, 양태적 의미 차이와 그로 인한 통사적 제약을 고찰했다.

이상 구체적 문법화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근래 문법화 연구의 몇 가지 경향을 알아볼 수 있다. 첫째, 조사, 어미 외에 ‘-는 법이다, -기 마련이다, -고 싶다’ 등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가 함께 구성된 관용형태, 심지어 ‘그 사람 말이야 어제 말이지 어디 가던데?’ 중의 ‘말이다’와 같은 담화표지까지 문법화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둘째, 통시적 연구뿐만 아니라 ‘-어 주다’, ‘-말이다’, ‘-는 법이다’처럼 자립 어휘 ‘주다, 말, 법’이 공존할 경우는 공시적으로 그 변화를 연구할 수 있다. 셋째, 화자의 어떤 주관적 태도, 즉 양태, 화용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형성된 문법형태들이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고 있다.

관용형태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를 고찰하는 본 연구도 이런 문법화 연구의 경향에 따른 실천적 연구로 간주할 수 있다. 아래 2장에서는 문법화의 개념과 범위, 문법화와 문법성 증가의 판단 기준을 먼저 검토한 뒤 3장에서는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의 문법화 정도를 고찰했다. 4장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용례검색기⁶⁾를 활용하여 관용형태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의 연어적, 문맥적 특징을 조사·통계함으로써 각각의 통사, 화용적 의미를 밝혀냈다.

6)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용례검색기: <http://db.koreanstudies.re.kr>

II. 문법화의 개념 및 범위

문법화의 개념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문법화는 문법화를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실사류(實詞類)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허사류(虛詞類)로 바뀌는 사적 변화”로 정의하며 주로 ‘-부터, -조차, -었’⁷⁾과 같이 이미 완전히 문법형태소가 된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달리 넓은 의미에서의 문법화는 문법화를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문법성의 정도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법화 개념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⁸⁾

최형용(1998: 470)에서 문법화를 수동적으로 그리고 협소하게 파악하는 것을 반대하며 문법화의 범위를 1)문법범주화; 2)문법형태화(①어휘형태소>어휘형태소; ②어휘형태소>문법형태소; ③문법형태소>문법형태소)로 넓게 규정하고 어휘화(語彙化) 현상도 의미의 약화, 음운적 축약 등 여러 면에서 문법화와 유사한 점이 많아 문법화의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지양(2003), 남미정(2010)은 ‘어휘화’(예를 들면 동사 ‘보-’에 피동의 ‘-이-’와 겸양의 ‘-읍-’이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 ‘뵈다’나 용언 ‘있-’에 어미 ‘다가’가 결합되어 형성된 ‘이따가’ 등) 현상과 ‘어휘형태소>어휘형태소’(예를 들면 ‘노릇’은 중세국어에서 자립명사로 ‘놀이’의 의미로 쓰였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구실’,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뜻밖에 벌어진 일’ 등으로 의미 변화를 겪었으며 의존명사로 된 것)의 변화는 문법화의 정의에 맞지 않거나 의미변화만으로 문법화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을 문법화의 연구 범위

7) 조사 ‘-부터’, ‘-조차’는 각각 용언 어간 ‘불-’, ‘쫘-’에 연결어미 ‘-어’, ‘-아’가 결합한 형태로부터, 과거시제 ‘-었’은 ‘-어 있-’의 형태로부터 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8) 이런 개념적 차이에 따라 ‘문법화’라는 술어를 단순히 결과를 강조한 grammaticalization 과 과정을 강조하는 grammaticization로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지양(2003: 212-3), 백낙천(2009: 244).

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덜 문법적인 것’>더 문법적인 것’의 변화로 넓게 정의한 문법화 개념에 따르면 문법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 문법성의 증가에 달려 있다.⁹⁾ 그리하여 앞서 살핀 ‘어휘화’는 문법성의 증가에 무관하고, ‘노릇’과 같은 ‘어휘형태소’>어휘형태소의 현상은 의미의 변화, 의존성의 획득은 되지만 그것이 문법성의 증가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문법화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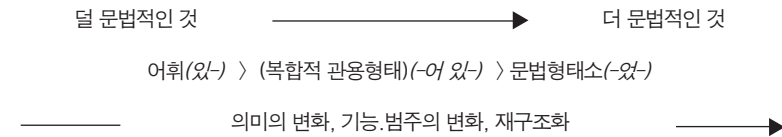
그러면 문법성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문법화의 원리와 기제로 ‘의미의 변화, 의미의 일반화, 재분석, 기능·범주의 변화, 의미지속성, 분화, 융합’ 등 많은 개념을 거론했지만 그중 정의가 중복된 것들이 많아¹⁰⁾ 본 연구에서는 남미정(2010: 221)에 따라 ‘의미의 변화’, ‘재구조화’와 ‘기능·범주의 변화’를 문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의미의 변화’는 ‘의미의 약화/일반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어휘의 의미가 구체적인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말하고, ‘재구조화’는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형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말하며 ‘기능·범주의 변화’는 어휘 범주에서 문법 범주로 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바꿔서 말하면 변화된 의미, 고정된 형태구조와 일정한 문법기능의 획득이 문법화 과정에서 흔히 수반된 현상이며 문법성의 증가를 고찰하

9) 이지양(2003: 224)에서 “문법화는 더 문법적으로 되었다는 사실 말고는 특이한 것이 없다. 따라서 문법화의 과정으로 제시되는 증거들 중에 상당 부분은 문법화에 특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문법화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문법적인 성질이 증가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10) 용어의 사용 문제는 문법화 연구의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들면 ‘의미의 변화/약화/일반화’, ‘재구조화/재분석’ 등 비슷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또한 ‘의미지속성’은 사실 ‘의미의 변화’에 수반된 현상이고 ‘음운적 축약’은 ‘재분석’의 한 가지 유형과 기제라고 볼 수 있다. 이성하(1999: 435)에서도 “문법화의 기제들은 서로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용어들이 정의하는 영역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동일한 변화가 시각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기제에 의한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리하여 자립명사 ‘결과, 끝, 나머지’가 변화된 의미로 관형형어미 ‘-(으)ㄴ’과 결합하여 선후행절을 연결해주는 문법기능을 수행하게 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를 문법화의 연구 범위 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법화를 ‘조사화’와 ‘어미화’로 좁게 한정하는 남미정(2010)은 물론 문법화를 넓게 정의한 최형용(1998)에 따르더라도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와 같은 관용형태를 문법화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어휘형태소’에서 ‘문법형태소’로 변화하는 과정에 ‘복합적 관용형태’라는 단계를 더 설정하여 ‘어휘형태소>복합적 관용형태’의 변화를 문법화 변화의 한 고리로 간주한다.¹¹⁾



<그림 1> 문법화의 개념, 과정 및 주요 원리

실제로 한국어에서 어휘가 직접 조사나 어미로 변화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 어휘가 다른 요소와 결합한 관용형태로 문법성을 얻었다가 다시 의미와 형태의 변화를 거쳐 문법형태소에 도달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자립용언 ‘있-’이 어미 ‘-어’와 결합하여 우선 복합적 관용형태 ‘-어 있-’이 되었다가 다시 의미의 변화와 음운적 축약을 거쳐 선어말어미 ‘-었-’이 형성

11) 남미정(2010: 215, 221, 222)에서 문법화의 대상과 산물에 대해 ‘형태소’ 단위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문법화의 시발점을 ‘어휘항목을 포함한 통사적 구성’으로 보지만 문법화의 산물은 문법형태소인 ‘조사’와 ‘어미’에만 제한하고 ‘어휘항목을 포함한 통사적 구성>문법형태’의 문법화 과정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문법화의 시발점을 ‘어휘’로 보고 ‘어휘>어휘항목을 포함한 통사적 구성(통합적 관용형태)’의 변화도 문법화 과정으로 간주한다.

되었다. ‘-부터’, ‘-까지’, ‘-껏-’도 모두 관용형태 ‘-을 붙어’, ‘-ㅅ ㄱ장’, ‘-게 ㅎ엿’에서 변화해 왔다.¹²⁾ 그리하여 ‘어휘형태소>문법형태소’의 문법화 유형 외에 ‘어휘형태소>복합적 관용형태’, ‘복합적 관용형태>문법형태소’의 변화도 모두 덜 문법적인 요소에서 더 문법적인 요소로의 변화로 보고 문법화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III.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문법화 정도

앞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립명사 ‘결과’, ‘끝’, ‘나머지’가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관용형태로 문법기능을 수행하게 된 변화는 모두 ‘어휘형태소>복합적 관용형태’의 문법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¹³⁾

그런데 문법화를 연속선상에 있는 변화 과정으로 간주한다면 이 세 관용형태의 의미, 형태, 기능 변화 즉 앞서 논의한 문법성의 판단 기준인 의미의 변화, 재구조화와 기능의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그들의 문법화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명사 ‘결과’, ‘끝’, ‘나머지’의 각 의미항과 그에 상응된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4) ㄱ. 사과가 결과 습성은 3년생 짧은가지의 정아에서 꽃이 피고 사과가 결실하게 된다. (①열매를 맺음, 또는 그 열매)
 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②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

12) 남미정(2010: 221-2) 참조.

13) 그러나 이들이 앞으로 완결된 문법형태소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

ㄴ.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위권 중 7개가 스포츠 중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

(5) ㄱ. 막대기 끝에 그물을 매달았다. (①긴 물건에서 가느다란 쪽의 맨 마지막 부분)

ㄴ. 우리나라 동쪽 끝에는 독도가 있다. (②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

회의가 길어져 끝이 보이지 않았다. (②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

ㄷ. 그가 끝으로 도착하였다. (③순서의 마지막)

ㄹ.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다. (④행동이나 일이 있는 다음의 결과)

ㄷ.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④행동이나 일이 있는 다음의 결과)

(6) ㄱ. 이 돈으로 먼저 등록금을 내고 나머지로는 책을 사라. (①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

ㄴ. 오늘 못한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죠. (②어떤 일을 하다가 마치지 못한 부분)

ㄷ. 분개한 나머지 한참 동안 말을 잊은 것 같았다. (③어떤 일의 결과)

사전 해석에서 나온 의미향과 예문을 보면 명사 ‘결과’, ‘끝’, ‘나머지’가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모두 의미의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언어학자 하이네(Heine)는 덜 문법적인 것이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하는 문법화 현상은 인간이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려는 은유(metaphor)의 인지기제가 작용한 것으로 설명한다. 어휘적 의미로부터 문법적 의미로 변화하는 과정은 반드시 의미의 추상화가 동반하며 Heine(1991)에서 인류의 사고 논리를 추상화 정

도에 따라 아래 (7)과 같이 6개의 차원으로 나누었다.¹⁴⁾

(7) ①사람 > ②대상 > ③행위 > ④공간 > ⑤시간 > ⑥질

구체 —————> 추상

위 (7)처럼 사람의 사고는 ‘①사람’에서 ‘⑥질’로 점차 구체적인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추상화해진다. ‘결과’를 나타낸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 중의 명사 ‘결과’, ‘끝’, ‘나머지’가 모두 ‘⑤시간’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간주하면 명사 ‘결과’는 (4ㄱ)의 ‘열매 또는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기본의미에서 (4ㄴ.ㄴ.)의 ‘어떤 일의 결말’로 의미가 전이되어 대체로 ‘②대상’이나 ‘③행위’에서 ‘⑤시간’으로 개념이 추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사 ‘끝’은 (5ㄱ)의 ‘긴 물건에서 가느다란 쪽의 맨 마지막 부분’이라는 기본의미에서 (5ㄴ.ㄴ.)의 ‘시간, 공간의 마지막 한계’와 (5ㄷ.ㄷ)의 ‘행동이나 일이 있는 다음의 결과’로 의미가 전이된 것은 ‘②대상>④공간>⑤시간’의 순서로¹⁵⁾ 개념이 추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사 ‘나머지’는 (6ㄱ)의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이라는 기본의미에서 (6ㄴ)의 ‘어떤 일을 하다가 마치지 못한 부분’과 (6ㄷ)의 ‘어떤 일의 결과’로 의미가 전이되어 대체로 ‘②대상>③행위>⑤시간’의 순서로 개념이 추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명사 ‘결과’, ‘끝’, ‘나머지’가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로의 변화에서 모두 2~3 단계의 추상화 전이가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서

14) “(1)lie on your **back** (2)the **back** of your shirt (3)to play **back** (4)three miles **back** (5)three years **back** (6)to be **back** in power”에서 볼 수 있듯이 ‘back’의 의미는 점점 추상화된다. 의미의 ‘추상화’는 “어휘소의 의미가 점점 특수성을 잃어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 변화과정(이성하 1999: 449)”을 가리키는 ‘일반화(generalization)’라는 개념과 비슷하다.

15) 표준국어대사전의 두 번째 의미항에서 “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과 같이 시간, 공간, 사물의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을 나누어서 개념의 추상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4ㄴ)과 (4ㄴ'), (5ㄷ)과 (5ㄷ')처럼 '결과'와 '끝'은 다른 명사 뒤에 단독으로 쓰일 때와 관용형태로 용언 어간 뒤에 쓰일 때 모두 '⑤시간'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달리 '나머지'는 (6ㄷ)처럼 관용형태 '-(으)ㄴ 나머지'로 쓰일 때만 '⑤시간'의 개념을 나타낸다.

다음은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재구조화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8) ㄱ. 분석 결과가(결과는/결과도) 나왔다.

ㄴ. 분석한 결과를(결과는/결과도) 발표했다.

ㄷ. 위성사건을 분석한 결과(*결과가/*결과를/*결과는/*결과도) 핵심설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9) ㄱ. 복도 맨 끝에(끝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ㄴ. 회의가 길어져 끝이(끝도) 보이지 않았다.

ㄷ. 오랜 고생을 한 끝에(*끝에는/*끝에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10) ㄱ. 이 돈으로 먼저 등록금을 내고 나머지로는 책을 사라.

ㄴ.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나머지를) 모두 저축한다.

ㄷ. 분개한 나머지(*나머지는/*나머지를) 한참 동안 말을 잊은 것 같았다.

위 (8ㄱ.ㄴ.), (9ㄱ.ㄴ.), (10ㄱ.ㄴ.)에서 잘 보이듯이 '결과', '끝', '나머지'가 자립명사로 쓰일 경우는 '결과가/결과는/결과도', '끝에/끝에는/끝이/끝도', '나머지로는/나머지는/나머지를'처럼 통사적 요구에 따라 여러 격조사와 보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8ㄷ)(9ㄷ)(10ㄷ)의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로 쓰일 때는 다른 조사와 전혀 결합하지 않고 고정된 형태로 쓰인다.¹⁶⁾

16) 아래 예문처럼 이전에는 '-(으)ㄴ 나머지' 뒤에 격조사 '-에'가 더 붙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으)ㄴ 나머지'의 형태로 고정되었다.

(8)의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 (8ㄱ)은 ‘[[분석 결과]NP+[나오다]VP]S’, (8ㄴ)은 ‘[[분석한 결과]NP+[발표하다]VP]S’, (8ㄷ)은 ‘[[위성사진을 분석하다]S1+[핵시설 위치를 확인하게 되다]S2]S’의 구조이다. (8ㄱ)과 (8ㄴ) 중의 ‘결과’는 모두 명사구를 구성하여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데 (8ㄷ)의 ‘-(으)ㄴ 결과’는 명사구를 구성하여 어떤 문장성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두 단문 S1과 S2를 하나의 복문으로 연결해주는 문법기능을 수행한다. (8ㄴ), (10ㄴ)의 ‘분석한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는’에서도 동사 어간 뒤에 관형형어미 ‘-(으)ㄴ’이 분석되어 (8ㄷ), (10ㄷ)의 ‘분석한 결과’와 ‘분개한 나머지’와 겹모습이 사뭇 비슷하게 보이지만 문장 속에서 완전히 다른 구조로 분석해야 한다.

(11) ㄱ.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시설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ㄱ’.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핵시설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12) ㄱ. 오랜 고생을 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ㄱ’. 오랜 고생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13) ㄱ. 분개한 나머지 한참 동안 말을 잊은 것 같았다.

ㄱ’. *분개 나머지 한참 동안 말을 잊은 것 같았다.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재구조화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위 (11)(12)처럼 관용형태 ‘-(으)ㄴ 결과’와 ‘-(으)ㄴ 끝에’가 ‘한 자어근+하다’ 구성의 동사 뒤에 쓰일 때는 쉽게 ‘한자어근+결과/끝에’의 구성으로 전환하여 같은 문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달리 (13ㄱ)의 ‘분개한 나머지’는 (13ㄱ’)의 ‘분개 나머지’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예: 무리한 지주에게 소작권을 약탈당하고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에 소작권확인을 법적으로 신청하여온 힘약한 소작인!!(〈十二名地主 걸어 作權返還訴〉(동아일보 1935.03.08))

(14) 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

ㄴ.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

(15) ㄱ. 사립과는 여러 차례 사회를 겪은 끝에 어렵사리 정치적 주도권을 잡았다.

ㄴ. 사립과는 여러 차례 사회를 겪었다. 그런 끝에(?그 끝에) 어렵사리 정치적 주도권을 잡았다.

(16) ㄱ. 너무 분개한 나머지 한참 동안 말을 잊은 것 같았다.

ㄴ. 너무 분개했다. 그런 나머지(*그 나머지) 한참 동안 말을 잊은 것 같았다.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로 연결된 문장을 두 문장으로 전환해 보면 (14ㄴ)의 ‘그 결과’는 접속 부사처럼 뒤 문장을 이어준다. (15ㄴ)에서 ‘그 끝에’도 될 것 같지만 ‘그런 끝에’가 더 자연스럽다. (16ㄴ)에서는 ‘그 나머지’가 어색하고 ‘그런 나머지’로 써야 한다. 이는 명사 ‘결과, 끝’이 지시 대명사 ‘그’와 결합하여 앞뒤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나머지’는 꼭 용언 뒤에 관형형어미 ‘-(으)ㄴ’과 결합한 관용형태로만 문법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가 모두 의미의 변화, 재구조화와 기능·범주의 변화를 거쳐 문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와 ‘끝’은 자립명사로서도 추상 개념을 나타내며 ‘-(으)ㄴ 결과’와 ‘-(으)ㄴ 끝에’가 쉽게 ‘명사+결과/끝에’의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형태, 의미, 기능이 더 고정된 ‘-(으)ㄴ 나머지’에 비해 문법화 정도가 조금 덜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으)ㄴ 결과’와 ‘-(으)ㄴ 끝에’보다 ‘-(으)ㄴ 나머지’의 문법성이 조금 더 높다.

IV.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통사·화용적 의미

앞선 예(3)에서 관용형태 ‘-(으)ㄴ 결과’, ‘-(으)ㄴ 끝에’와 ‘-(으)ㄴ 나머지’가 서로 간에, 그리고 연결어미 ‘-(으)니’, ‘-어서’, ‘-고’와 서로 교체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결과’라는 의미를 인과관계로 인한 것과 시간상의 선후로 인한 것으로 나누어 이 세 관용형태의 통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 세 관용형태가 화자의 어떤 주관적 판단을 표현하느냐는 화용적 의미를 고찰해 보겠다.

(17) ㄱ.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시설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ㄴ. 위성사진을 분석해서/분석해 보니/*분석하고 핵시설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18) ㄱ. 심사숙고를 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ㄴ. 심사숙고를 해서/하고/*하니 결정을 내렸다.

(19) ㄱ. 생전 처음 청중 앞에 나선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박자조차 맞추지 못했다.

ㄴ. 생전 처음 청중 앞에 나선 그는 너무 당황해서/*당황하고 박자조차 맞추지 못했다.

위 (17)의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분석해서/분석해 보니’로 교체할 수 있지만 ‘분석하고’로 교체하기는 어렵다. (19)의 ‘당황한 나머지’는 ‘당황해서’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당황하고’로는 교체가 안 된다. 한편 (18)의 ‘심사

숙고를 한 끝에’는 ‘심사숙고를 해서’ 혹은 ‘심사숙고를 하고’로 교체할 수 있지만 ‘심사숙고를 하니’로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관용형태 ‘-(으)ㄴ 결과’와 ‘-(으)ㄴ 나머지’는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 ‘-니’처럼 ‘인과관계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고, 관용형태 ‘-(으)ㄴ 끝에’는 방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와 동작의 선후를 나타내는 ‘-고’처럼 주로 ‘시간상의 선후에 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준다.

‘인과관계’와 ‘시간상 선후’는 선후행절을 어떻게 연결해주느냐를 설명하는 통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통사적 의미 외에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는 화자의 어떤 강조와 판단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를 화용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화용적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본 연구는 주로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용례검색기¹⁷⁾를 통해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가 쓰인 문장을 각각 50개씩 수집하여 그들의 선후행절의 내용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앞에 나온 단어의 분포 양상을 아래 <표 1>과 같이 조사했다.

<표 1>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선행 단어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		
선행 단어	빈도	순위	선행 단어	빈도	순위	선행 단어	빈도	순위
조사하다	7	1	벌이다	6	1	당황하다	4	1
분석하다	6	2	생각하다	4	2	답답하다	3	2
실시하다	3	3	기다리다	3	3	사랑하다	2	3
실험하다	2	4	뒤지다	3	3	지나치다	2	3

17)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선행절의 ‘가나다’ 혹은 ‘하과타’ 순으로 검색결과를 정렬하는 것과 달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용례검색기는 코퍼스를 구성한 글들의 년도 순으로 예문을 정렬한다. 검색 결과가 많아 그중 일부만을 통계할 때 후자를 이용하는 것이 편차를 줄이는 데에 적합하다. 그러나 전체 예문을 모두 통계하지 않는 한 이 빈도수 통계결과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검사하다	2	4	겪다	3	3	흥분하다	2	3
검토하다 벌이다 시행하다 점검하다… (30개)	1	5	거치다	3	3	두려워하다	2	3
			거듭하다	3	3	기쁘다	2	3
			다니다	2	4	믿다	2	3
			가지다	2	4	실망하다 긴장하다 억울하다 질투하다 반하다 …(31개)	1	4
			고생하다 고민하다 시달리다 검토하다 조사하다 …(21개)	1	5		1	4

위 <표 1>과 같이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앞에 나온 선행 단어의 빈도수를 통계해 보았다.¹⁸⁾ ‘-(으)ㄴ 결과’의 앞에는 주로 ‘분석하다, 조사하다, 실험하다’ 등 필연코 어떤 사실이 밝혀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동사들이 나온다.¹⁹⁾ ‘-(으)ㄴ 끝에’는 주로 ‘벌이다, 생각하다, 기다리다, 거듭하다’ 등 동작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동사들과 잘 결합한다. ‘-(으)ㄴ 결과’와 ‘-(으)ㄴ 끝에’가 동사와만 결합하는 것과 달리 ‘-(으)ㄴ 나머지’는 ‘답답하다, 기쁘다’ 등 심리 형용사와 ‘당황하다, 사랑하다, 흥분하다, 두려워하다, 기뻐하다, 실망하다’ 등 심상(心狀)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잘 어울린다.

또한 <표 1>을 살펴보면 ‘조사하다, 검토하다, 벌이다’ 등 동사는 관용형

18) 선행 단어를 통계할 때 ‘조사를 한 결과’와 같이 ‘한자명사+를/을+하다’로 구성된 것을 하나의 한자어동사로 처리하고, ‘시행해 온 결과’, ‘조사해 본 결과’와 같이 보조동사 ‘오다, 보다’가 들어있는 구조에서는 본동사 ‘시행하다, 조사하다’를 추출하여 선행단어로 처리한다.

19) ‘-(으)ㄴ 결과’ 앞에 ‘검토하다, 벌이다, 시행하다, 점검하다’ 등 동사가 각각 한 번만 출현한 것으로 통계됐지만 무엇을 다루고 살펴봄으로써 어떤 결과를 알아내거나 초래한다는 의미특징은 빈도수가 높은 ‘분석하다, 조사하다’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하여 50개의 문장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는 어떤 경향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통계 수량의 제한으로 그 결과에 오차가 존재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태 ‘-(으)ㄴ 결과’와 ‘-(으)ㄴ 끝에’ 앞에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으)ㄴ 나머지’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는 다른 두 관용형태와 결합하지 않는다. 이는 ‘-(으)ㄴ 나머지’가 다른 두 관용형태와 확연히 다른 의미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19) ㄱ. 소변검사를 한 결과 임신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ㄴ.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결과 실제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대류권 높이가 올라갔다.

ㄷ. 평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 본 결과 58%가 운동을 한다고 대답했고 42%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ㄹ. 세계적 브랜드를 최대 5개씩 적게 한 결과 ‘소니’가 24%로 가장 많았으며, 애플(11%)와 코카콜라(9%)에 이어 삼성(8%)이 4위를 차지했다.

ㅁ. 남녀직원 7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7%가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20) ㄱ. 무려 세 시간 반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마침내 나는 그 한의사와 마주앉게 되었다.

ㄴ. 8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올림픽 금메달을 품에 안게 되었다.

ㄷ. 사립파는 여러 차례 사회를 겪은 끝에 어렵사리 정치적 주도권을 잡았다.

ㄹ. 6년간 이리저리 떠돌며 생활한 끝에 김포에 자리를 잡고 제자를 가르치며 울분을 달래고 있었다.

ㅁ. 몇 번이나 실패를 한 끝에 간신히 올라갔다.

(21) ㄱ. 우리들은 그 광경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모두 일어서서 박자를 맞추었고 그리고 춤을 추었다.

ㄴ. 처용은 크게 실망한 나머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그저 명산대천을

떠돌며 심신을 단련하고...

- ㄷ.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나는 집을 나오고야 말았다.**
- ㄹ. 아울러 당국은 이 같은 사정에 **지나치게** 고무된 나머지 **공연히 공권력 투입 등 선부른 강수를 쓰지 말아야 한다.**
- ㅁ. 그러나 염려가 **지나친** 나머지 **과잉대응을 할 경우 역작용을 일으킬 것이 오히려 염려된다.**

(19)~(21)에서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예문 각각 5개씩을 들어서 그 선행행절의 내용 특징을 살펴본다. (19)를 보면 ‘-(으)ㄴ 결과’의 후행절은 ‘임신이 아니다’, ‘58%가 운동을 하고 42%는 하지 않는다’, ‘소니(24%), 펄시(11%), 코카콜라(9%), 삼성(8%)’과 같이 주로 어떤 객관적 사실이 밝혀지고 ‘나타나다, 밝혀지다, 드러나다’ 등 동사가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으)ㄴ 결과’는 후행절 내용이 ‘객관적 사실임’을 강조하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20)에서 ‘-(으)ㄴ 끝에’의 후행절은 ‘한의사와 마주앉게 되었다’, ‘올림픽 금메달을 품에 안게 되었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았다’처럼 주로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으)ㄴ 끝에’의 선행절에는 ‘무려, 오랫동안, 한참, 꽤 오래, 여기저기, 여러 번, 몇 번이나’나 ‘8년, 6년간’등 시간, 횟수, 노력이 많음을 의미하는 부사어, 후행절에는 ‘마침, 드디어’ 등 부사어가 많이 나온다. 이런 선행행절의 내용으로 보서는 관용형태 ‘-(으)ㄴ 끝에’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해내다’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문장 속에 함축되어 있다.

(21)을 보면 ‘-(으)ㄴ 나머지’의 선행절에는 ‘너무, 너무나, 너무도, 크게, 지나치게’ 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부사어들이 많이 나온다. ‘-(으)ㄴ 나머지’는 ‘선행절의 어떤 지나친 감정으로 인해 후행절의 행동을 하게 되다’ 문맥에서 ‘어떤 감정이나 상태의 정도가 기준치를 넘다’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앞에서 논의한 관용형태 ‘-(으)ㄴ 결과/ 끝에/나머지’의 선행행절 내용 특징과 이 세 관용형태의 통사·화용적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표 2〉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선행행절 내용 특징과 통사, 화용적 의미

	선행행절	후행행절	통사적 의미 화용적 의미
-(으)ㄴ 결과	‘분석하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등 동사	어떤 사실이 밝혀짐	[인과관계] [후행행절이 객관적 사실임을 강조]
-(으)ㄴ 끝에	‘벌이다, 생각하다, 기다리다’ 등 지속적, 반복적 동작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이루어짐	[시간상의 선후]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임을 강조]
-(으)ㄴ 나머지	‘당황하다, 대답하다, 기쁘다’ 등 감정, 심리를 나타낸 형용사나 동사	어떤 행동을 하게 됨	[인과관계] [감정의 정도가 지나침을 강조]

위 〈표 2〉에서 밝힌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통사·화용적 의미에 근거하여 이 세 관용형태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더 살펴보자.

- (22). ㄱ. 지난 74년부터 외국의 전문가와 국내 전문기관에서 **수차례** 경부축의
교통문제를 **검토한 결과** 高速鐵道가 수송능력, 안전성, 에너지 소모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最適代案으로 판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ㄴ.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끝에** 정보화 축진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했다.
ㄷ. **답답한 나머지** 직접 공장에 내려와 생산을 독려한다.

(22 ㄱ)의 ‘수차례’가 (22 ㄴ)의 ‘두 차례’보다 횟수가 더 많아 보이지만 ‘-(으)ㄴ 끝에’의 의미 기능 때문에 (22 ㄴ)만이 청자에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22 ㄱ)은 ‘-(으)ㄴ 결과’ 뒤에 어떤 객관적 사실이 밝혀지느냐에 청자의 관심을 이끈다. (22 ㄷ)의 선행행절에서 ‘너무’와 같은 정도부사가 안 나왔지만 ‘-(으)ㄴ 나머지’의 의미 기능 때문에 마음이 아주 답답하다는 정도 의미가 전달된다.

- (23) ㄱ. 소변검사를 한 결과/*끝에/*나머지 임신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ㄴ. 8년을 기다린 끝에/*결과/*나머지 드디어 올림픽 금메달을 품에 안게 되었다.
 ㄷ.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결과/*끝에 눈물까지 보였다.

- (24) ㄱ. 범인을 조사한 끝에/결과 한달 만인 12월 21일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ㄴ. 증량 공급 교섭을 벌인 결과/끝에 이란에서 5만 5천 배럴, 멕시코에서 2만 5천 배럴, 말레이시아 8천 배럴, 오만 4천 5백 배럴등 9만 2천 5백 배럴을 추가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23)은 각각의 의미 특징 때문에 세 관용형태가 서로 교체할 수 없는 예들이다. (24)에서 ‘-(으)ㄴ 결과’와 ‘-(으)ㄴ 끝에’가 서로 교체할 수 있지만 전달된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24ㄴ)을 보면 ‘교섭을 벌인 결과’는 선행절의 원인으로 인해 후행절의 객관적 사실이 밝혀짐을 강조하며, ‘교섭을 벌인 끝에’는 고단한 교섭을 거쳐서야 후행절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됨을 강조한다.

- (25) ㄱ. 감기에 걸려서/걸리니 병원에 갔다.
 ㄱ'. *감기에 걸린 결과/나머지 병원에 갔다.

- ㄴ. 밥을 먹고 학교로 갔다.
 ㄴ'. *밥을 먹은 끝에 학교로 갔다.

- (26) ㄱ.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분석해서/분석해 보니 핵시설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ㄴ. 심사숙고를 한 끝에/해서/하고 결정을 내렸다.
 ㄷ. 생전 처음 청중 앞에 나선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당황해서 박자조차 맞추지 못했다.

앞선 (19)~(21)에서 ‘-(으)ㄴ 결과’와 ‘-(으)ㄴ 나머지’는 인과관계를 나타낸 연결어미 ‘-어서’, ‘-(으)니’와 비슷하고, ‘-(으)ㄴ 끝에’는 시간상의 선후를 나타낸 연결어미 ‘-고’와 통사적 의미가 비슷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5)처럼 ‘감기에 걸려서/걸리니’를 ‘감기에 걸린 결과/나머지’로, ‘밥을 먹고’를 ‘밥을 먹은 끝에’로 교체할 수 없다. 이는 ‘-(으)ㄴ 결과/끝에/나머지’의 화용적 의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5ㄱ)의 선행절인 ‘감기에 걸리다’가 심리 감정이 아니므로 ‘-(으)ㄴ 나머지’를 사용할 수 없고, 후행절 ‘병원에 갔다’가 어떤 객관적 사실에 비해 동작에 가까우므로 ‘-(으)ㄴ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25ㄴ)의 ‘밥을 먹고’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므로 ‘-(으)ㄴ 끝에’를 사용할 수 없다.

설사 (26)처럼 ‘-(으)ㄴ 결과’, ‘-(으)ㄴ 끝에’와 ‘-(으)ㄴ 나머지’를 연결어미 ‘-어서, -니’ 혹은 ‘-어서, -고’로 교체할 수 있어도 문장의 의미는 똑같지 않다. 가령 (26ㄴ)의 ‘심시숙고를 한 끝에’는 ‘심시숙고를 해서/하고’보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더 강조한다.

V. 나오기

본 연구는 자립명사 ‘결과’, ‘끝에’, ‘나머지’가 관용형태 ‘-(으)ㄴ 결과’, ‘-(으)ㄴ 끝에’와 ‘-(으)ㄴ 나머지’로 변화하는 문법화 과정에서 일어난 의미 변화, 기능·범주의 변화와 재구조화 현상과 세 관용형태의 통사·화용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문법화를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문법성의 증가가 문법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문법성의 증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의미의 변화’, ‘재구조화’와 ‘기능·범주의 변화’가 중요

한 기준이 된다. ‘어휘형태소’에서 ‘문법형태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법성을 취득한 ‘복합적 관용형태’를 문법화 변화의 한 고리로 봐야 하니 ‘어휘형태소>복합적 관용형태’의 변화를 문법화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의미의 변화, 재구조화와 기능·범주의 변화를 거쳐 문법성을 취득한 관용형태 ‘-(으)ㄴ 결과/끝에/나머지’는 대체로 ‘어휘형태소>복합적 관용형태’의 문법화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와 ‘끝’은 자립명사로서도 추상 개념을 나타내며 ‘-(으)ㄴ 결과’와 ‘-(으)ㄴ 끝에’가 쉽게 ‘명사+결과/끝에’의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형태, 의미, 기능이 더 고정된 ‘-(으)ㄴ 나머지’에 비해 문법화 정도가 좀 덜 진행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관용형태 ‘-(으)ㄴ 결과’는 주로 ‘분석하다, 조사하다, 실험하다’ 등 동작에 의해 어떤 객관적 사실이 밝혀짐을 나타낸다. ‘-(으)ㄴ 끝에’는 주로 ‘벌이다, 생각하다, 기다리다’ 등 지속, 반복이 가능한 동작에 의해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으)ㄴ 나머지’는 ‘답답하다, 당황하다, 기쁘다’ 등 심리 형용사와 ‘당황하다, 사랑하다, 흥분하다, 두려워하다, 기뻐하다, 실망하다’ 등 심리 동사들과 결합하여 어떤 지나친 감정 때문에 후행절의 어떤 동작을 하게 됨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 세 관용형태의 통사·화용적 의미를 각각 ‘-(으)ㄴ 결과[인과관계][결과가 객관적 사실임을 강조]’, ‘-(으)ㄴ 끝에[시간상의 선후][많은 시간과 공을 들임을 강조]’와 ‘-(으)ㄴ 나머지[인과관계][감정의 정도가 지나침을 강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통사·화용적 의미 특징 때문에 관용형태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가 서로 간에, 그리고 ‘-어서’, ‘-니’, ‘-고’ 등 연결어미와 서로 교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설사 교체할 수 있어도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전달됨을 알 수 있다.

* 본 논문은 2017. 1. 29. 투고되었으며, 2017. 2. 14. 심사가 시작되어 2017. 3. 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민국(2011), 「'말이다' 구성의 문법화와 화용화」, 『국어학』 62, 73-106, 국어학회.
- 남미정(2010), 「국어의 문법화에 대한 재고」, 『한국어학』 49, 209-233, 한국어학회.
- 박승윤(2003), 「국어 수혜격 구문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10(1), 105-120.
- 백낙천(2009), 「국어의 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화』 39, 241-257, 한국언어문화학회.
- 안병희(1967), 『한국문화사대계 5: 한국어 발달사-문법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안주호(1999), 「연결어미 '-기에/-길래'의 특성과 형성 과정」, 『담화와인지』 6(1), 101-120, 담화인지언어학회.
- 안주호(2004), 「'-는 법이다'류의 양태표현 연구」, 『국어학』 44, 185-210, 국어학회.
- 안주호(2006ㄱ), 「현대국어 '싫다' 구문의 문법적 특징과 형성과정」, 『한국어 의미학』 20, 371-391, 한국어의미학회.
- 안주호(2006ㄴ), 「현대국어 연결어미 '-니까'의 문법적 특성과 형성과정」, 『언어과학연구』 38, 71-91, 언어과학회.
- 안주호(2010), 「'-치고'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고찰」, 『한글』 288, 43-72, 한글학회.
- 안주호(2011), 「현대국어 '-고' 계열 조사의 문법화 연구」, 『한국어 의미학』 34, 213-233, 한국어의미학회.
- 양주동(1939), 「향각주석산고」, 『진단학보』 10, 110-133, 진단학회.
- 유창돈(1962), 「허사화 고구」, 『인문과학』 7, 1-23,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李錦姬(2012), 「依存名詞의 文法化 程度와 樣態의 意味」, 『어문연구』 40(3), 57-8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성하(1999), 「문법화론과 한국언어학」, 『언어과학연구』 16, 427-458, 언어과학회.
- 이수련(2003), 「'있다'의 문법화에 대한 의미·화용적 연구」, 『국어학』 42, 177-205, 국어학회.
- 이승녕(196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지양(2003), 「문법화의 이론과 국어의 문법화」, 『정신문화연구』 26(3), 211-23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 최형용(1998), 「문법화의 한 양상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2, 469-48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Bybee, J.(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 Bybee, J. et al.(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e, B. et al.(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pper, P. & Traugott, E.(1993), *Grammaticaliza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결과를 나타낸 관용형태 ‘-ㄴ(은) 결과/끝에/나머지’의 문법화 정도와 통사·화용적 의미

곽일성(郭一誠)

명사 ‘결과’, ‘끝’, ‘나머지’는 자립명사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 문장 성분으로 쓰이기도 하고, 관용형태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로 문장의 선행행절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와 비슷한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아직 완전한 문법형태소가 되지 않았지만 문법성을 어느 정도 취득하게 된 이 세 관용형태는 대체로 ‘어휘형태소>복합적 관용형태’의 문법화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법성 증가의 판단 기준인 ‘의미의 변화’ ‘기능·범주의 변화’와 ‘재구조화’에 따라 세 관용형태의 문법화 정도를 비교해보면 형태, 의미, 기능이 더 고정된 ‘-(으)ㄴ 나머지’가 ‘-(으)ㄴ 결과’와 ‘-(으)ㄴ 끝에’에 비해 문법화 정도가 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관용형태 ‘-(으)ㄴ 결과’와 ‘-(으)ㄴ 나머지’는 주로 ‘인과관계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고, 관용형태 ‘-(으)ㄴ 끝에’는 주로 ‘시간상의 선행에 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관용형태 ‘-(으)ㄴ 결과’는 주로 ‘분석하다, 조사하다, 실험하다’ 등 동작에 의해 어떤 객관적 사실이 밝혀짐을 나타낸다. ‘-(으)ㄴ 끝에’는 주로 ‘벌이다, 생각하다, 기다리다’ 등 지속, 반복이 가능한 동작에 의해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으)ㄴ 나머지’는 ‘답답하다, 기쁘다’ 등 심리 형용사와 ‘두려워하다, 실망하다’ 등 심리 동사들과 결합하여 어떤 지나친 감정 때문에 후행절의 행동을 하게 됨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 세 관용형태의 통사·화용적 의미를 각각 ‘-(으)ㄴ 결과 [인과관계][결과가 객관적 사실임을 강조]’, ‘-(으)ㄴ 끝에 [시간상의 선행][많

은 시간과 공을 들임을 강조]와 ‘-(으)ㄴ 나머지[인과관계][정도가 지나침을 강조]’로 정리할 수 있다.

핵심어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 문법화 정도, 통사적 의미, 화용적 의미

The Grammaticalization Phenomenon and Syntactic & Pragmatic Meaning of Usual Form

‘-(으)ㄴ 결과/끝에/나머지’

Guo Yicheng

‘결과(result)’, ‘끝(end)’, ‘나머지(the rest)’ can be used as an independent noun in sentences. Meanwhile, they also can be used as an usual form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 in sentences acting a grammatical function to connect two clauses. Although they haven’t become grammatical morphemes, but their meaning become abstract and they have fixed grammatical morphology when they are used as an usual form. Therefore they can be regarded as an incomplete grammaticalization phenomenon ‘word>compound usual form’.

In this paper,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으)ㄴ 나머지’ is more grammaticalized than ‘-(으)ㄴ 결과’ and ‘-(으)ㄴ 끝에’ in sequence by concerning their meaning abstraction, morphological reanalysis and decategorialization. We also revealed the difference of their syntactic and pragmatic meaning based on corpus data statistics. ‘-(으)ㄴ 결과’ is usually used with the verbs like ‘분석하다(analyze), 조사하다(investigate), 실험하다(test)’ and the later half of the sentence always express a certain objective fact is revealed. ‘-(으)ㄴ 끝에’ is always used with the verbs which may last for a long time or repeat several times such like ‘벌이다(start), 생각하다(think), 기다리다(wait)’, and the later half of the sentence usually express some goal or mission was achieved. ‘-(으)ㄴ 나머지’ is used with the verbs or adjectives which express emotion or feeling such like ‘답답하다(stuffy), 당황하다(embarrassed), 기쁘다(happy)’, to express that something was done because the emotion was too strong. Consequently, we can make a conclusion that usual form ‘-(으)ㄴ 결과’ expresses [cause-and-effect relationship][emphasis on which subjective fact was revealed], ‘-(으)ㄴ 끝에’

expresses [order of time][emphasis on a lot of time and effort was spent],
'-(으)ㄴ 결과' expresses [cause-and-effect relationship][emphasis on which
emotion is too strong].

KEYWORDS '-(으)ㄴ 결과', '-(으)ㄴ 끝에', '-(으)ㄴ 나머지', Grammaticalization, Syntactic
Meaning, Pragmatic Meaning